

인천정유, Sinochem에 안판다?

채권단, 인수대금 6351억원 부결 ... Sinochem-Citigroup 경쟁

법정관리중인 인천정유의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.

1월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정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은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chem의 인천정유 인수대금(6351억원)을 문제삼아 1월20일에 이어 다시 인천정유의 정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.

법정관리기업의 정리계획안은 정리채권자의 2/3(67%), 정리담보권자의 3/4(75%)이 동의해야 가결되지만 24일 집회에서 정리채권자의 40%정도만 동의했다.

법원은 1월31일 관계인 집회를 한번 더 열어 최대 정리채권자(정리채권액 3748억원의 31.3% 보유)인 Citigroup과 Sinochem의 인수경쟁에 부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.

이에 따라 인천정유는 1월31일 속행될 관계인 집회에서 Sinochem 또는 Citigroup 가운데 한 곳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.

<화학저널 2005/01/26>